

# 오등봉공원 사업 속도... '졸속 심의' 비판도

### 제주도 도시계획위 보완 요구 2주만에 조건부 통과 환경연합 "도, 사업 강행...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보완 요구 이후 2주만에 재심의가 열리는 등 '졸속 심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등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 우려 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오등봉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 도시계획위 위원들은 사업자인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에 곱슬근락지가 별채되지 않도록 하고 5차로 능률차로제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초 제안 당시 임대 세대수 총량을 확보하고, 영구저류조는 다목적 용도로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는 추후 협약 과정의 주요 계획내용을 위원

회와 공유하고 건축 규모 산정에 대한 자료·분석결과 제시,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지만, 환경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졸속 심의를 주장하며 환경과피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재심을 강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면서 "이는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상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며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봉 76만4863㎡ 중 18%(9만5426㎡)에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1432세대를 수용 가능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농업유산 발담과 힐링 제주 만든다 제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구로

### 내년부터 4년간 70억 투입

제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를 포함한 총 70억원을 투입,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된 제주발담을 자원 삼아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사업지구로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주발담과 함께 하는 힐링 제주 플랫폼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민간사업단이 응모해 탈락함에 따라 올해 초 농식품부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 파급효과가 제주 전역으로 미치면서 제주시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테마를 선정,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5월 응모했다. 사업거점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올 초부터 여러 차례의 전문가그룹 회의와 주민설문 등을 거쳐 자원 발굴과 타당성 조사, 주민욕구를 반영해 결정했다. 특히 와흘은 메밀 주산지인 제주발담과 메밀, 오름, 편백나무숲을 연계한 치유프로그램과 발담을 끼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향토음식 가공 판매·레시피 개발 등 푸드플랜 구성과 힐링센터 운영, 마을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0개 시·군을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분야 핵심사업이다. 지역자원 활용 신상품 개발과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개선, 창업과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2019년 서귀포시가 '서귀포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남원읍 신흥1리를 거점으로,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감귤껍질(진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생산·판매하고, 감귤과육을 활용한 연계사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지구 내 시청사 부지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2단계 확충공사(2단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청사부지는 현재 각종 행사 등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각종 행사 때마다 주차와 통행 불편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시설 확충에는 총 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7억원(본예산 12억, 추경 5억원)이 투입돼 지난 8월 1단계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주차장, 산책로 일부가 조성됐다. 제주시는 9월부터 추진하는 2단계 공사를 통해 주차장과 산책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부족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3월까지 전기시설과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백록담 만수**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지난 2일 한라산 남벽에 1000mm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백록담이 오랜만에 만수위를 보여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콜라비 재배 알맞은 비료량 찾는다

### 도내 재배 면적 급증에도 농가 양분 관리에 어려움도, 기준 마련 실증시험

콜라비는 배추과에 속하는 월동채소로 도내 재배면적은 2010년 64ha에서 2019년 476ha로 급증하는 등 농가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콜라비 재배 시 비료사용량이 설정되지 않아 재배농가가 양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은 2018~2019년 자체시험을 거쳐 콜라비 재배 시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설

정했다. 농업기술원 시험 결과, 10a당 질소 19.5kg, 인산 12.4kg, 칼리 15.9kg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기술원은 한림지역 콜라비 가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원이 설정한 비료사용량과 농가 비료사용량을 처리한 후, 생육과 수량성 등을 조사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콜라비 구의 무게는 생육 초기(30~45일) 완만하게 증가하다 정식 후 45일에서 65일 사이 급격히 증가

하는 등 단계별 생육 차이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질소와 칼리의 경우 총 시비량의 절반은 밑거름·정식 30일 후 절반은 웃거름으로 사용하고, 인산은 전부 밑거름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콜라비 등 새로운 소득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재배농가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가격표시, 잊지 마세요" 서귀포시 추석 앞두고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가격표시제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시장, 관광지 등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규모 점포,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시는 추석 명절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및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다.

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 적도 표시해야 한다. 할인포동, 매장 밖 진열 품목 등도 실제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소통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그랜드보청기**

2020년 9월 장애인보청기가격고시제 시행안내

\* 전장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귀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예감, 탐나는봉

**가정원예 (조경수)**

2~7년생 하귤, 필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뱀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 1,3년생

감귤 ..... 1,3,4년생

성하홍조생 ..... 1년생

성전온주 ..... 1년생

천해향 ..... 4,5년생

황금향 ..... 4,5년생

유라실생 ..... 3,4년생

뱀자묘 .....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번이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